

## 협회뉴스 증양회, 11월 난방시공업 기술인력 교육 실시



증양회는 11월 3일은 부산, 10일 광주, 17일 강원도, 23일 대전, 24일 대구·경북, 29일 서울에서 한국열관리사협회와 공동으로 '2005년도 난방시공업기술인력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난방시공업 기술인력 교육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 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2004.7.26)에 따라 우리협회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실시하는 것으로 난방시공업 제1,2,3종의 기술인력이 교육대상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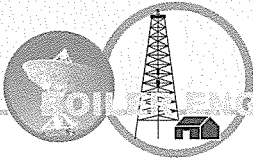
교육내용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법

령 및 에너지 정책 ▷안전사고사례 및 방지대책 ▷시공업 관련 신기술·신공법 ▷에너지이용효율성능 개선을 위한 건축물 리모델링 교육 총 네과목으로 구성되어 교육생들의 업역 확대사업 다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으로 편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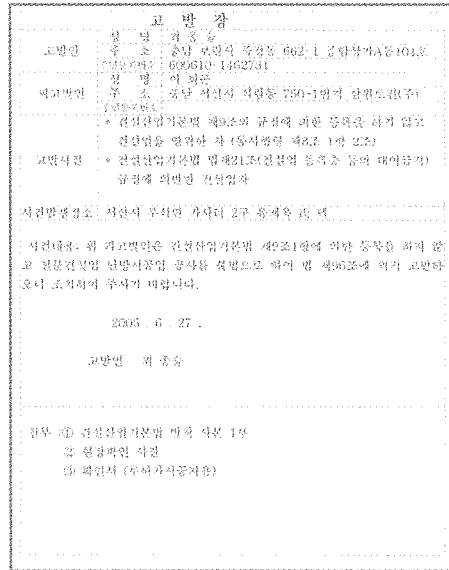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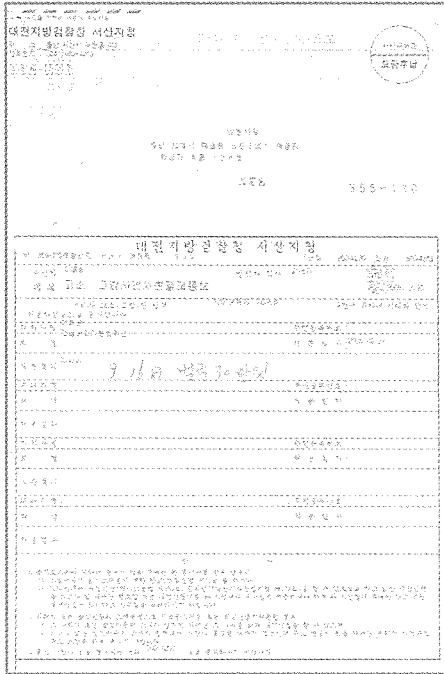
이번 교육은 12월까지 전국 순회교육으로 실시되며, 교육을 이수치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접수는 수시접수로 하고 있으며, 증양회나 가까운 지부지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BNI



# 협회뉴스 충남지부, 무허가 고발 무등록자 벌금형 부과



충남지부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제출한 고발장(우)과 판결문(좌) 내용

충남지부(최종술)는 지난 6월 27일 무등록업자(삼원토건)가 서산시 부석면의 가옥 두체에 난방시공하는 것을 목격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1항 및 제96조에 의거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조치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무등록자에게 벌금형 30만원을 부과했다는 내용을 충남지부에 알려왔다.

최 충남지부장은 “이번사건을 통해서 충남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무등록자들을 고발하여 회원들의 업역을 보호하고 더 이상 무등록자들이 난방시공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했다.

충남 사무국장(방대만)은 “무등록자가 지인이라고 묵과하지 말고 고발조치하여 무등록자를 근절시켜나가야 한다. 특히, 무등록자 고발 같이 우리의 업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을 협회에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버리고 회원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권익 보호해 노력하자”고 했다.

무등록업자 고발은 우리의 생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보는 즉시 고발조치등의 강력조치를 펼쳐 무등록업자들이 더 이상 시공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원천부터 근절시켜 나가야 하겠다.

BN